

지역주민운동 지킴이 활동의 생애사적 의미와 주민 통합 : 성주사드배치철회운동을 중심으로*

정 은 경**

• 요 약 •

2000년대 이후 갈등의 국지화 정책으로 기지 건설이나 국책사업으로 인한 위협의 피해 당사자는 인구가 적은 지방의 마을 주민이 되었다.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에는 부족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타 지역의 활동가나 시민들이 방문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저항을 지원하는 '지킴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사드배치철회운동이 전개되는 성주군 소성리의 지킴이를 사례로 지역주민운동에 참여하는 지킴이들의 생애사적 의미를 분석하고, 저항 공간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소성리 마을에 장기 거주하는 지킴이 3명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저항의 자원을 공급하는 외부 활동가라는 단일한 속성으로 파악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구조적 요인과 정치적 기회구조, 운동조직과의 연계, 종교와 개인적 경험 등의 다양한 요소가 지킴이들의 생애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맥락과 경험 속에서 소성리의 지킴이들에게 기독교적 윤리를 실천하는 교사,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가, 삶의 방식으로서의 활동가라는 생애사적 의미를 각각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소성리 마을 현장이 지킴이와 마을 주민의 기계적 결합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외부자인 지킴이들의 헌신과 내부자인 마을 주민들의 수용 노력이 결합하여 주체들의 변화를 견인하는 역동적인 사회운동의 장임을 알 수 있었다. 소성리 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지킴이들이 5년이 넘는 긴 기간과 반복되는 일상생활과 저항 실천을 공유한 결과 지킴이들은 스스로를 외부자가 아닌 소성리 '주민'으로 인식하는 변증법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킴이, 소성리, 지역주민운동, 사회운동, 사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 049225).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I. 들어가며

1. 문제 제기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민중민주운동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사회운동의 전술도 물리적 충돌로 대표되던 운동 레퍼토리가 촛불집회나 세월호의 노란 리본과 같이 상징과 문화가 동반된 참여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¹⁾ 국책사업이나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에서도 변화는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당국의 갈등의 국지화 정책²⁾으로 위험 시설의 피해 당사자는 인구가 적은 지방의 마을 단위 주민들이 되어왔다. 고령화된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의 작은 마을은 동원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을 비롯한 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찾아와 연대를 실천했다. 지역주민운동 현장을 찾은 활동가들 중에는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장기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저항에 참가하는 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킴이’의 호칭이 등장한 것은 2006년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일어난 평택의 대추리 주민운동 현장이다. 동원의 자원이 부족한 대추리 마을에 평화와 반기지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가들이 찾아왔다. 전국에서 찾아온 활동가들은 대추리 마을에서 몇 달간 거주하며 주민들과 함께 미군기지 건설 장비 반입 감시와 공사 저지 투쟁에 참가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이들을 가리켜 지킴이라 불렀다.³⁾ 이후 지킴이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성주 소성리의 사드배치 철회운동의 현장에도 등장하여 반기지 운동의 주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지킴이’는 ‘지키다’의 명사형 ‘지킴’과 사람을 뜻하는 의존명사 ‘이’가 결합한 말로 “어떤 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⁴⁾ ‘우리말 지킴이’, ‘문화재 지킴이’, ‘안전 지킴이’ 등의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지킴이’의 일반 명사가 생존의 터전과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역주민운동의 치열한 투쟁 현장에서 독특한 조직적 지위와 활동 방식을 가진 ‘활동가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지킴이는 연대를 위해 주민운동 현장을 찾은 종교인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달리

1) 최재훈,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사회』, 제113권, 2017, p.74.

2) 이상현·이정필·이보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공간과 사회』, 제48권, 2014, p.266.

3) 윤여일,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제1호, 2017, p.101.

4)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네이버(<http://naver.com>) 검색. 검색어: 지킴이 (검색일: 2024.07.31).

교단이나 운동조직과의 직접적인 결합은 없거나 느슨했으며, 특정 조직의 성원 자격이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마을에 남았다. 대추리의 지킴이들이 대부분 이전 사회운동 경력이 있었던 반면에,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이전 사회운동 경험이나 지킴이(대추리)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도 있었지만, 단순한 여행⁵⁾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⁶⁾으로 강정 마을을 찾았다가 지킴이가 된 비사회운동 경험자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⁷⁾ 지킴이가 다른 활동가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참여 기간이다. 지킴이는 단기간 ‘방문’이 아닌 장기간 머물면서 ‘거주’의 형태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일상 생활과 실천 투쟁을 함께 공유했다. 정영신은 타 지역에서 온 외부자인 지킴이들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로 구성된 투쟁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킴이’라는 호칭이 투쟁 공간에서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는자로 포용되는 ‘호명’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보았다.⁸⁾ 윤여일에 의하면 제주 강정마을의 지킴이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에도 이전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남아 ‘평화 책방’, ‘평화회관’, ‘평화센터’ 등을 만들며 ‘신주민’이 되었다.⁹⁾ 지킴이가 지역주민운동 동원의 새로운 주체이며 기존 활동가들과는 활동 방식과 조직적 결합 형태가 뚜렷하게 구분되기에 이와 같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사회운동 주체로서 지킴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탐색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¹⁰⁾ 최혜영은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의 지킴이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지킴이 활동을 통한 정치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지킴이들의 단편적 답변을 토대로 저항 참여의 동기를 ‘공감’, ‘분노’, ‘정의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회운동 주체의 변화를 단선적 인과 관계로 설명¹¹⁾하는데

5) 딸기, 『돌들의 춤: 강정에 사는 지킴이들의 이야기』, 충청남도: 카카포, 2023, p.150.

6) 딸기(2023), 위의 책, p.208.

7) 딸기(2023), 위의 책, 강정지킴이의 참여 동기와 지킴이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이 책에는 11명의 강정 지킴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에 실린 강정지킴이 중에서 이전 사회운동 경험이 없는 이들의 직전 직업 및 상황을 살펴보면 꽃집 사장, 춤 명사가, 임용고시 준비생, 군 제대 후 제주로 여행 온 청년이 있다.

8) 정영신,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투쟁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변동”, 『탐라문화』, 제58권, 2018, p.167.

9) 윤여일(2017), 앞의 논문, p.101.

10) 정영신은 성주 사드배치 반대운동(정영신, 2017: 331)에서 지킴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의 연구(정영신, 2018)에서 지킴이의 경제적 특징과 투쟁공동체의 재편에 지킴이가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킴이 연구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성주와 제주 강정의 주민운동에 대한 정영신의 두 연구에서 지킴이는 2~3페이지의 분량으로 운동 주체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에 머물러 있으며, 운동의 주체로서 미시동원 차원의 분석은 부재하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 강정마을의 투쟁 과정에서 ‘구립비 바위’라는 공공자원이 저항의 응집력으로 작용하였으며, 투쟁의 산물로 운동의 주체들이 새로운 공공자원인 커먼즈(communs)를 형성한 것에 주목한 윤여일(2017)의 연구에서도 지킴이는 주요 분석의 대상은 아니다.

11) 최혜영, “사회운동 참여와 정치의식의 성장: 강정지킴이 체험과 생태, 평화, 여성의 가치”, 제주대학교 사

그치고 있다.

많지 않은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킴이는 부족한 인적 자원의 공급자로서 열정적인 활동가라는 단일한 속성으로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 주체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 수준의 사회변동을 개별적 실천을 통해 시도하는 행위자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미시동원 차원에서 저항 참여의 동기와 실천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단선적인 인과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행위자 차원의 전기적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구조와 정치적 기회, 그리고 사회적 경험과 타 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지킴이에 대한 분석도 구조적 맥락과 전기적 차원의 경험과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킴이는 일상과 실천 활동이 구분되는 기존의 사회운동 주체들과는 차이가 있다. 전업적 사회운동가로 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들도 현장과 사무실의 공적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서 거주지는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지킴이는 주민운동이 발생하는 마을에 직접 이주하여 실천 활동과 일상생활을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기에 공적 공간 안에서 공적 실천과 사적 생활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킴이 활동에 대한 분석은 저항의 직접적인 실천 외에도 일상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과 주고받는 독특한 경험과 생활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가 지킴이에 대해 가진 질문은 ‘동기-과정-결과’의 틀을 중심으로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누가 지킴이가 되며, 그들은 왜 지킴이가 되었는가?’

‘지킴이의 활동은 어떠한가, 지킴이 활동은 그들의 생애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지킴이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호작용 과정과 그 결과는 어떠한가?’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성주군과 소성리의 사드배치 철회운동은 핵심 운동조직과 주체가 시기별로 큰 변동을 보였다. 2016년 7월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가 사드배치지역으로 발표되었을 때에는 성주군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한 항의의 주체가 되었으며, 2016년 9월 성주군의 최북단 초천면 소성리 성주골프장으로 사드배치 지역이 변경되자 피해 당사자는 성주군 소성리의 주민과 사드레이더의 북쪽에 위치한 김천시 주민들로 바뀌게 되었다.¹²⁾ 2017년 4월과 9월 소성리 롯데 골프장(이하 사드 기지)

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12) 성주 사드배치 철회운동의 시기별 운동조직과 투쟁 공동체의 특징에 대한 연구로는 정영신(2017)과 홍성태(2019), 정은경(2020)이 있다. 또한 성주군 소성리 사드기지 아래에 위치한 원불교 성지를 지키기 위한 원불교 교도들의 저항에 대한 조성윤·김선필(2017)과 원영상(2019)의 연구가 있다. 2016년 7월 전국적인

으로 사드 발사대와 장비가 반입되자, 소성리 마을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결집지로서 상징성이 더욱 커졌다. 피해 당사자인 소성리 마을과 인근 김천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원불교 교도들이 소성리 마을에서 매주 평화 행동을 통해 저항을 표출했으며, 주민들의 뜻에 동참하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개별적 방문자들이 소성리를 찾아 연대활동에 동참했다. 타 지역에서 소성리를 찾아온 연대자 중에는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소성리 마을에 남아 몇 년간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사드배치 철회운동에 동참하는 지킴이들이 등장했다.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인 2022년을 기준으로 5년~6년 동안 소성리에 거주하는 지킴이는 모두 4명이었으며,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일상적 장비 반입 감시활동과 장비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4년 현재에도 소성리 마을에는 사드 기지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한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드배치 철회운동이 진행되는 소성리 마을의 지킴이를 사례로 지역주민운동의 새로운 주체인 ‘지킴이’의 저항 참여 동기와 활동을 분석하여 생애사적 의미를 밝히고, 해당 지역주민과 지킴이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결과와 그 동학의 과정을 미시동원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지킴이는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지킴이에 대한 정의나 명확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던 초기 저항에 비해, 소성리로 사드 배치 지역이 변경되고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가 기지로 반입된 이후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 지킴이들의 저항은 2024년 7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소성리의 주민운동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7년이 넘는 장기적인 투쟁 과정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문화적 실천을 통해 저항을 유지하는 점에 주목한 이재각(2023)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와 달리 소성리의 장기적인 주민저항과 그들의 일상에 주목한 이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들이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 곁에서 투쟁과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성리(박배일 감독, 2018)>가 있고, 2024년 8월 개봉을 앞둔 <양지뜸(김상패 감독, 2024)>가 있다.

정영신, “국가와 군사기지에 대항하는 공동체의 투쟁”, 『창작과비평』, 제45권 제2호, 2017 p.316.

홍성태, “‘성주 사드배치 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변화 : 님비운동의 자기변형과 저항공동체의 재편”,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2019, p.308.

정은경, “성주 사드배치철회운동의 주민 리미널리티”,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조성윤·김선필, “성주 소성리의 사드배치반대운동과 원불교의 미래”, 『종교연구』, 제77권 제3호, 2017, p.155.

원영상, “종교의 사회적 구제와 민중종교론에 나타난 사회참여 -원불교의 평화운동과 교단 변혁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제80집, 2019, p.67.

이재각, “성주군 소성리의 사드반대운동과 지역사회의 동향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 모임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41호, 2023, p.525.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킴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운동조직의 소속 유/무 등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평택의 대추리와 제주의 강정마을의 지킴이는 해당 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감시활동과 저항 실천에 동참하는 활동가들을 뜻했다. 소성리에서 사용되는 지킴이의 용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택과 강정마을과 같이 타 지역 출신으로 반 기지운동을 위해 소성리로 들어와 장기 거주하면서 실천투쟁에서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두 번째는 사드 기지와 가까운 김천, 구미, 성주 등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사드배치 철회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다. 사드 기지로 인한 위협의 당사자이지만 소성리에 거주하지 않은 이들은 매주 2회(화요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실천 투쟁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며, 크고 작은 소성리의 저항 의례와 집회에 참가한다. 세 번째는 연대자의 개념으로 짧게는 반나절이나 2~3일, 일주일, 30일 등 다양한 기간 동안 소성리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개별적 참가를 하거나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단체의 조직적 참가 등 조직적 결합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에서 ‘지킴이’라는 호명은 마을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물고 외부자들의 참여에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¹³⁾, 외부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원권의 인정과 같은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일반적인 연대자나 지지 방문 활동 또는 인근 지역 피해 주민의 결합이 아니라, 타 지역주민임에도 반 기지운동이 일어나는 마을에 찾아가 장기간 거주하며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첫 번째 유형의 지킴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했다.¹⁴⁾ 일회적 방문이나 조직적 결합, 종교적 신념을 위한 장기 거주가 아니라, 개별적 자격으로 스스로 피해 마을의 ‘주민되기¹⁵⁾’를 자처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 주체인 지킴이에 대한 두꺼운 기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했던 개인이 소성리 마을에 찾아와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사드배치 철회운동에 동참하는 활동가들을 ‘지킴이’로 보고, 지킴이의 사회운동 참여동기와 지킴이 활동의 생애사적 의미,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를 조사했다. 또한 저항의 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활동가라는 도구적 접

13) 정영신(2018), 앞의 논문, p.167.

14) 소성리 지킴이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소성리에 거주하는 지킴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지킴이 4명만을 한정했다. 소성리의 홍보글이나 SNS 게시물 등의 여러 문구에서 지킴이의 용어가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투쟁 공동체 내부 성원 사이에서 엄격한 의미의 지킴이는 외부자 출신으로 소성리에 들어와 장기 거주하는 첫 번째 유형의 지킴이를 공통적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15) 정영신(2018), 위의 논문, p.167.

근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일상 생활과 저항을 공유하는 행위자로서 지킴이와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소성리 마을 주민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소성리의 지킴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에서 소액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¹⁶⁾, 아무런 재정적 지원 없이 경제적 자립과 비조직적 형태의 개인 자격으로 지킴이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단체나 종교단체의 조직적 결정으로 소성리 사드배치 철회운동의 상황실에 근무하는 조직적 참가의 활동가들은 지킴이에서 제외했다. 운동의 현장에서 이들은 지킴이라 불리지 않으며, 자신이 운동조직에서 맡은 직위로 ‘○○팀장’, ‘◎◎실장’, ‘△△교무’ 등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이전 거주 지역(타 지역 거주자)과 거주 기간(소성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조직적 결합 유무(조직적인 직무로 소성리 운동조직에 결합하지 않은 자)에 따라 지킴이의 기준을 정의할 때, 소성리에는 4명의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성리에 장기 거주하는 4명의 지킴이 중에서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나머지 1명은 연구자의 사정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¹⁷⁾ 3명의 지킴이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총 4회의 현장 조사와 7회의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생애사는 개인의 생애 시간 동안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와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행위를 결정해 온 경험과 기억에 대한 조사이다. 따라서 생애사는 개인적 삶의 이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담고 있다.¹⁸⁾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지킴이의 생애사 연구는 사회운동의 주체가 형성되는 생애사적 궤적에서 사회적 의미구조와 틀이 어떻게 작용되었는가를 분석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심층 면접은 2022년 8월부터 구술 생애사 조사를 위해 지킴이 3인을 대상으로 총 5회를 진행했으며, 소성리 주민 2인을 각 1회씩 진행했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 16) 소성리의 지킴이 중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운동단체에서 소액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있지만 이들의 결합 방식은 조직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으로 소성리에 거주하게 된 것이며, 활동의 방식도 개별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 17) 본 연구를 위한 심층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네 번째 지킴이는 2016년부터 소성리 마을에 이주하여 사드배치 철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천주교 활동을 통한 이전 사회운동 경험이 있는 대구 출신의 50대 남성이다(주민1: 16). 네 번째 지킴이는 기타 연주와 노래로 일상적인 집회에서 문화공연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소성리 할머니들과 ‘민들레 합창단’을 꾸려 사드배치 반대집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중가요 공연을 올렸다. 2022년 조사 시기에는 소성리에 주택을 매입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였기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귀촌인’ 또는 ‘완전 주민’이라 칭했다. 본 연구를 위한 한정된 조사기간 동안 해당 지킴이가 성주와 소성리를 떠나 부재 상태였기에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이후에는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연구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18)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권 제3호, 2005, p.132.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소성리 거주 기간	이전 사회운동 경험	심층면접 횟수 (총 소요 시간)
사례자A (지킴이)	64	남	5년 (2017~2022)	전교조 운동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	3회 (8시간 41분)
사례자B (지킴이)	52	남	6년 (2016~2022)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1회 (3시간 4분)
사례자C (지킴이)	48	남	5년 (2017~2022)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대추리 기지 반대운동 영덕 핵발전소 반대운동	1회 (2시간 5분)
주민D	71	남	64년 (학업, 군 입대로 7년 타지역 거주)	가톨릭 농민회, 성주군 농민회 활동	1회 (65분)
주민E	74	남	12년 (소성리로 귀촌)	없음	1회 (62분)

※ 연구 참여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은 조사 시점인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

사례자A와 C는 2017년부터 소성리에 지킴이로 들어와 활동을 시작해서 2022년 조사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사례자B는 사드배치철회 전국행동에 소속된 사회운동 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의 파견 활동가로서 소성리에 2016년 들어와 상황실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2020년부터 상황실 팀장 역할을 사임하고, 소성리 마을에 계속 남아 지킴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¹⁹⁾ 심층면접에서 지킴이에 대한 주요 질문은 지킴이의 생애를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이야기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개방형 질문을 진행한 후에,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민의 선정은 주민D가 사드철회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사드배치철회운동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한 소성리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 대표성을 가지기에 연구 참여자에 포함시켰다. 주민E는 2010년에 소성리 마을에 귀촌한 주민이며, 특히 집회와 시위의 중심인 마을회관에 입점한 상가(편의점)를 운영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과 경찰 및 외부 방문객과 사회운동단체 회원들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주민이기에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또한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전개하는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19) 사례자B는 2020년부터 조사 시점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지킴이 활동을 해 왔다. 사례자A와 C에 비해 지킴이로서의 활동기간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2016년부터 소성리 마을에 6년 동안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지킴이의 활동을 지켜봐 왔으며 자신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킴이 활동을 해 왔기에 연구 참여자에 포함시켰다.

지켜봐왔으며, 자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기에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소성리 주민에 대한 주요 질문은 사드배치 철회운동의 현재 상황과 지킴이와 주민들의 구체적 실천, 그리고 지킴이와 마을주민들이 일상 생활과 실천 투쟁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했다.

II. 소성리 지킴이의 생애사

1. 사례자A: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교사

1) 가난한 청소년기에 만난 차별 없는 교회

사례자A는 1959년 충북 ○○군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사례자A의 아버지는 ○○군 ○○면의 면서기였다가 공주로 이사하여 출판사 방문 판매원 일을 했으나, 막내아들이 판매 수금액을 들고 가출한 사건을 계기로 퇴직 후 실업자가 되었다.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한 사례자A의 가족들은 흠뻑돌로 된 무허가 건물로 된 집에 20여 년을 거주하였다. 사례자A는 ‘이쁜 옆집 양옥집’과 상반된 ‘가난한 판자촌 우리집’으로 청소년기의 가난을 기억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이쁜 옆집 양옥집’ 사람들과의 사소한 다툼이 큰누나의 머리 상해와 어른들의 소송으로 이어졌던 경험은 ‘가난한 판자촌에 사는 우리 집’ 사람이 겪는 부당한 일이었다(사례자A: 11, 151).²⁰⁾

청소년기의 사례자A가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중에 서울대 사범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던 사례자A는 중학교 재학 시절에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성경 공부와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 댁에 가서 과외 한다’ 이라고서 이제 선생님 댁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일요일에는 이제 교회 가서 같이 중고등부 같이 예배 보고, 모임 갖고 뭐 그랬었죠. ... (중략) ... 어쨌든 선생님이 ‘너 와서 같이 하자’ 하고서 갔는데. 가서 이제 선생님이 전하는 교회 신앙 교육에 거기에 흠뻑 젖어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과 차별 없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죠. ... (중략) ... 서로 다툼 이유가 없는 가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서로 보면 즐겁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사례자A: 156-

20) 괄호로 표기된 인용 표기는 심층면접에 참가한 구술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와 해당 구술자의 녹취록 페이지를 나타낸다. 위 인용은 사례자A의 녹취록 11쪽과 151쪽에 구술된 내용이다.

157)

교회에서 이제 예수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일찌감치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사례자A: 19)

가난과 불평등으로 잦은 갈등이 있는 세속의 삶에 비해 사례자A가 교회에서 경험한 기독교 교리와 신앙생활은 ‘우리 동네와는 완전 다른 천국(사례자A: 11)’과 같은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사례자A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역에서 평범한 소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그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이 사회가 불공평한 사회다, 불공정한 사회다, 불평등한 사회다’ 이런 것이 너무 사무쳤던 거죠. ...(중략)... 서울 누나 집에 가면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난생 처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주소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만났던 평범한 서민들 일상들을 보고 하면서, 그래도 이 밑바닥에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끈끈하게 인간적인가.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삶. 뭔가 희망을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세상을, 이제 그런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사례자A: 163-164)

예민한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낯선 환경에서 경험한 평범한 시민들의 호의는 그들에 대한 실천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심은 기독교 교리에 담겨진 사랑과 헌신과 유사했다. 서울역에서의 경험으로 사례자A는 “어떤 금력이나 권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건 불가능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예, 교육이 가장 핵심이다. 가장 옳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까? 이제 생각하다가 도덕 선생님이 되기를 (사례자A: 164-165)” 결심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에 진학한 사례자A는 교사의 길을 위해 ‘교육’관련 서클인 ‘민족 교육 연구회’에 가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서클은 사회과학 서적 세미나를 연구하는 소위 ‘이념 서

클’이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사회변화’를 희망하는 자신의 생각과 서클의 ‘앞장서서 하는 데모 방식’과 노동운동의 진로 전망은 일치하지 않았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아주 서슬 퍼렇던 그 시절에 앞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 이제 소수의 대학생 그룹이나 대학생들이나 하는 그런 운동이 되거나 소수 이렇게 그런 앞장서서 데모하는 그런 식의 그쪽으로는 어려울 거다. 온 국민이 깨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서 뭔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례자A: 161)

대학 서클에 대한 사례자A의 평가는 현재적 입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사례자A는 대학3학년이 되면서 서클 활동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자신의 계획대로 서울의 △△여자중학교(이후 △△여중)의 도덕교사로 부임했다.

사례자A의 구술은 대학 서클의 이념적 영향보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와 신앙 공동체의 경험이 ‘이타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재현하고 있다.²¹⁾ 청소년기의 사건과 경험은 개인의 생애 기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²²⁾ 중고등학생 시기까지 불평등에 대한 사무친 불만을 가졌던 사례자A는 서울역에서 경험한 시민들의 호의를 계기로 ‘이타적 삶’을 환기할 수 있었으며, 교육자로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교육자를 결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중학교 시기에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해주고, 천국과 같은 평등을 경험하게 해준 교회와 기독교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21) 사례자A의 대학 서클 경험은 ‘체험된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로 구분할 수 있다(이희영, 2005: 134).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이야기된 생애사(a Life as told)’로서 사례자A는 대학 서클의 급진적 활동 방향이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실천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기에 활동을 중단했다고 구술하여 서클 경험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사례자A가 교사로서 전교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 서클에서의 만난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했다. 대학 서클에서 체험한 사회과학 세미나와 동료들의 만남은 사례자A의 생애과정에서 진보적 세계관 형성 및 사회운동 활동가 연결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험한 생애사(a life as experienced)’로 본 연구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된다. 이와 같은 체험된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의 구분을 통해 사례자A의 현재적 관점에서 교회의 경험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Schuman, Howard and Scott, Jacqueline,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No. 3, 1989, p.360. 슈만(Howard Schuman)과 스코트(Jacqueline Scott)에 의하면 개인이 사회에 대해 배우는 청소년기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이전의 사건과 변화를 중요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으며, 둘째 아동기에는 가족이나 개인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정치 세계에 대해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며, 셋째 대부분의 사람은 청소년기의 ‘신선한’ 경험에 비해 성인기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를 중요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전교조 교사와 체벌 교사

대학을 갓 졸업한 총각 선생님이었던 사례자A는 학생들에게도 꽤 인기가 많은 도덕 교사였다. 첫 학교에서 얼마 있지 않아 군대를 다녀온 뒤, 다시 학교에 복직하고 그 다음 해인 1986년에 대학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다. △△여중 교사로 복직한 사례자A는 대학 서클 활동에서 알았던 옛 동료들을 통해 YMCA 상록회에 참여하게 되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후 전교조) 활동을 시작했다.

86년인가 그 무렵부터 상록회에 나가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강연에 다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전국교사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전교협, 이제 지역교사협의회 해가지고 지교협, 각 학교에 평교사 협의회 해서 평교협,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교육 운동을 교사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중략)... 그때 네 참교육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명나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사 노조를 만들자고 노조로 만들자고 ‘노조로 전환시키자’ 라는 제안이 올라왔어요. (사례자A: 29-30)

사례자A는 노조 가입 교사와 비가입 교사의 분리를 이유로 전교협의 전교조 전환을 반대했으나, 근무하는 △△여중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결정으로 전교조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 5월 전교조가 창립되고, 전교조 서울 중서부지청 교육선전부장을 맡은 사례자A는 학교와 교회 등지에서 전교조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자A는 경찰과 정부 당국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교조 탈퇴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여름방학 동안 탈퇴하라고, 탈퇴 각서를 쓰라는 압력을 무지무지 받았는데. ‘그래 너 계속 조합원으로 활동해도 좋아. 근데 각서 쓰고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런 식의 압력, 부모 형제 친인척 동창 선후배 총동원해서 압력을 가했으니깐요. (사례자A: 34)

끝까지 탈퇴 각서를 쓰지 않은 사례자A는 결국 해직되었고, 해직 이후에는 복직을 위한 출근 투쟁을 전개했다. △△여중 교문 앞에 돛자리를 깔고 손수건에 ‘거리의 교실’이라고 써서 지휘봉에 매달아 매일 유인물을 만들고, 수업자료를 읽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다(사례자A: 5). 본격적인 출근 투쟁을 위해 사례자A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해 ‘감감한 토굴’과 같이 환풍도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집을 구해야 했다(사례자A: 45). 이사 후 전교조 설명회로 교육선전부장의 역할로 정신이 없는 시기에 사례자A의 첫째아들(당시 만 3세)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아이의 투병 소식

이 전해지면서 전교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헌혈 카드와 투병 기금이 모금되어 사례자A에게 전달되었지만, 아이는 4개월의 투병을 끝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사례자A는 아들 잃은 슬픔을 추스릴 시간을 미처 가지지 못한 채, 전교조에서 받은 전국적인 후원과 지지에 대한 보답을 결심하였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만 해선 안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너네들이 나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그래도 뭔가 나를 써먹을 때가 있다면 써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열어놓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교조에 대해서도 뭐가 내려오면 그냥 바로바로 별 불평불만 없이 그냥 달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열어놓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그런 제안이 온 거예요.(사례자A: 46)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에 사례자A는 서울시 중구의 진보적 청년단체 ‘중민청’²³⁾의 추천으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교회 목사님과 먼저 상의하고, 전교조 중서부지회와 논의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투표 결과 신한국당 후보가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었으며, 민주당 후보가 2위, 무소속인 사례자A는 3위로 낙선했다. 이후 사례자A는 생계를 위해 해직교사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출간하는 잡지를 만들고 외관을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했다. 몇 년이 지나고 1994년에 해직교사 복직이 논의되었다. 정부에서는 전교조 탈퇴 각서를 쓰면 복직이 아닌, 신규 채용 형식의 특별 채용으로 교단에 돌아갈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전교조 차원에서는 정부안을 활용해서 위장 탈퇴 각서를 쓰고 복직하여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논의 되기 시작했으며, 사례자A는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저는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우리가 애초에 이런, 이런 식으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었다. ... (중략) ...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코 이건 바른 게 아니다. 이제 이건 투항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원상복직이 아니면 끝까지 거부를 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몇 사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례자A: 49)

사례자A는 전술적 위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근시안적 실리보다 원칙적인 투쟁

23) 사례자A는 이 단체가 ‘중구 민주 청년회’와 비슷한 명칭 같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하며, ‘중민청’의 약칭만을 기억했다. 중민청에는 사례자A의 제자가 몇 명 있었는데, 이들의 추천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사례자A: 44)

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 교사가 복직하여 더 이상 혼자 남아 투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사례자A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교조 탈퇴 각서를 쓰고 복직하였다. 하지만 사례자A는 위장 탈퇴가 아닌 실질적 탈퇴를 선택했다. 전교조의 조직적 결정보다 사례자A는 자신의 정직한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전교조 탈퇴 이후 사례자A는 본격적인 도덕 교사로서의 역할과 업무에 집중했다. 학교 수업 시간표와 교사들의 출장에 따른 수업 시간표 조정을 담당하는 ‘수업계’는 모두 기피하는 업무였으나 사례자A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사례자A가 더 집중할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의 학교 수업 내용이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뭔가 이제 체계가 틀이 잡혔어요. 그래서 도덕 교과서 정부에서 주어진 국정교과서 덮어두고, 주제 중심의 수업해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네,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수업을 주로 해 왔죠. ... (중략) ... 삶의 도리를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재해석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사례자A: 16-17)

사례자A는 도덕 과목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희생과 양보의 원리, 실천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한 자신만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교사의 수업권을 확립했다(사례자A: 21). 또한 줄 세우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O/X 문항을 통한 시험 문항의 개발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평가권을 가지려 시도했다(사례자A: 54). ◎◎여중에서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업이 끝나고서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에 만족감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학교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교육으로 변화되자, 사례자A는 자신의 교육법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습관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매를 드는지 체벌의 이유를 정당화했어요. 합리화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헛소리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폭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그건 거짓이다. 서로 바뀌었다 해도 변화되었다 해도 또 다른 폭력을 낳았을 뿐이다. 거짓된 성경이나 불경에 나오는 식으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데 동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일찌감치 그만뒀죠. 나는 교사로서 실패자다. (사례자A: 23-24)

사례자A는 체벌 이외에 다른 교육법을 알지 못한다는 자책과 유능한 젊은 교사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퇴직을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사례자A의 블로그 글을 근거로 ‘빨갱이 선생님’이라고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다(사례자A: 64).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 개발이라는 교육 내용과 모순되는 자신의 체벌을 통한 교육방식, 그리고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퇴직을 고민할 무렵, 사례자A의 건강이 심근경색 등의 질병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결국 퇴직금의 축소를 감수하고 2013년 만 54세에 명예 퇴직했다. 군대 입대와 해직 기간을 합친 7년을 포함하여 1983년 임용되어 2013년 퇴직까지 30년을 머문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다.

대학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도덕 교사로서 재직하는 청·장년기 동안 사례자A의 삶은 한국 사회 정치구조와 절합(articulation)되어 있다. 1980년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이념 서클의 활동과 교육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전교조 활동, 그리고 지방자치제 부활로 인한 제도정치 진출의 시도,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직업윤리에 대한 성찰로 명예 퇴직의 결정 등이 사회구조와 연동된 개인 차원의 선택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자A는 종교적 윤리를 기반으로 한 자기 주관과 독자적인 교육자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소속되었던 대학 서클이나 전교조의 조직적 결정과 개인의 선택이 충돌한 경우가 많았다. 전교조 창립의 시기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운동조직의 결정을 따르기도 했고, 1994년 전교조의 위장 탈퇴 결정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여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례자A는 1994년 복직 이후부터 2013년 퇴직할 때까지 전교조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 시기는 사례자A의 생애사에서 사회운동의 공백기가 된다.

3) 세월호로 시작된 기독교운동, 그리고 소성리 지킴이

퇴직 후에 사례자A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서울의 국립의료원과 동부시립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진보적인 기독교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를 통해 알게 된 성서 통독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성서 강의를 들던 시기인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월호 사건 만나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학생들을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의 한 부분이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이 되었고... (사

례자A: 65-66)

자신이 교사로서 가르쳤던 규칙 준수와 규범 순응의 윤리 교육이 ‘가만히 있으라’는 지침을 지키다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이끌게 한 시스템과 동일했다는 자각은 사례자A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실천으로 이끌었다. 사례자A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천막을 방문하고,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촛불교회’를 만들었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사례자A는 촛불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수살기’라는 진보적 기독교인 모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살기에는 사례자A가 성서 통독 강의를 진행한 김○호 목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전부터 성서 강의를 통해 형성된 김○호 목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수살기 재정 형편을 들여다 보니까 총무로서 지급받기로 한 사례비가 한 달에 150인데 한 1년 몇 개 월치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걸 못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비가, 단체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걸 이제 빚을 얻어다가 그걸 메꾸고 있는 거예요. ...(중략)... 그걸 보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이제 처음 감동을 먹었죠. (사례자A: 67)

예수살기에서는 강원도 홍천의 양수댐 반대, 홍천송전탑 반대운동, 부산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싸우고 있는 많은 목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정신과 신앙적 실천에 감동 받은 사례자A는 예수살기 사무국장을 맡게 된다. 교사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신은 활동비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며, 재직 당시 쌓은 다양한 행정업무의 경력을 가진 자신은 사무국장 실무를 맡기에 적임자였다(사례자A: 67-68). 예수살기 사무국장으로 2~3년 근무하면서 사례자A는 현장 활동 소식을 취합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며,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지원활동을 하며 단체의 안정적인 후원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몇 년간의 열정적인 기독교운동 단체 상근자의 업무는 사례자A의 건강을 다시 악화시켰다. 특히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12월에 사례자A는 지병인 심근경색 외에도 무릎과 허리 통증이 이어졌으며 나중에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광시증이 생겼다(사례자A: 69-70).

건강이 악화된 사례자A는 건강회복을 위해 지리산 댐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양○승 목사를 통해 평소 환경운동으로 친분이 두터운 스님들의 도움으로 불교 사찰인 실상사에서 한 달을 보낼 수 있었다. 추가적인 휴가를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사로부터 성주군 소성리의 사대배치 철회운동 현장에 한 번

와보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연대의 현장이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성리를 방문한 날은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소성리에서 ‘범국민평화운동’으로 5천여 명이 집결한 전국적 규모의 집회가 있었다. 함께 내려간 기독교 공동체 청년들과 원불교 천막 옆에 기독교 천막을 설치했는데 당일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당하게 되었다. 다시 소성리에 기독교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살기 활동을 이어가던 중 성주 소성리에 기독교 기도소 설치와 상주 인력에 관한 논의가 나왔다. 참석자 중 누군가가 농담조로 사례자A에게 소성리로 피정²⁴⁾ 갈 것을 말했다.

“어차피 피정 가는 거 피정 가서 할 일이 뭘니까 산책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산책하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야 그 싸움터에 가서 그런 거 하라는 게 말이 되냐 서로 농담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점점 크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러면서 아무래도 나더러 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 (사례자A: 75)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독교 운동 단체 사무국장이 되었으며, ‘소성리로 피정을 가라’는 농담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해하게 된 사례자A는 2017년 4월 18일 소성리를 찾아 기독교 기도소 천막의 상근자가 되었다. 이때까지 사례자A는 ‘지킴이’라 불리지 않았다. 소성리를 지키는 여러 종교단체의 상근자 중에 한 명이었다. 소성리로 내려온 며칠 후, 2017년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대가 성주 롯데골프장 안으로 반입되고 점차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지던 4월 30일 유조차 반입 저지 투쟁을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던 중에 사례자A는 유조차의 진입을 막고 있는 주민 차량을 경찰이 강제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때 차들을 끌어내고 이제 강제로 견인해 내고 사람들 해체할 때, 그때 작은 경차 하나에 여성 동지 두 분인가 타고 있고 뒤에 자녀 둘이 타고 있고. 그런 차를 경찰이 오함마(큰 햄머)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중략)... (내가) 경찰들 위를 덮쳤어요. 진짜.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 옷이 짝 찢어져 있고 허벅지가 다 드러나고, 이제 팬티가 드러나고 그러고 있더라고. (사례자A: 80)

24) 피정은 일반적으로 성당·수도원 등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행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련생활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신교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피정’이라 일컫는 경우도 있었다(사례자A: 71).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유조차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직접 경험한 사례자A는 본격적으로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 철회운동을 펼치는 ‘지킴이’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살이 사무국장을 사임한 후에 기독교 컨테이너에서 기거하면서 소성리의 지킴이가 되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 기독교 컨테이너는 기독교 연대자들을 위한 기도소이자, 사례자A의 숙소가 되었다. 본격적인 지킴이로서 일상적인 사드 기지 공사의 차량의 반입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매일 아침 개신교 기도회를 준비하고 주관 목사 부재시에는 직접 기도회를 주관하기도 했다.(사례자A: 8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자A는 퇴직 후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운동 활동가로 나서게 되었다.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중고등학교 도덕 교사였던 사례자A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정치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을 정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도덕적 충격²⁵⁾을 주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과 성경 공부로 은퇴 생활을 즐기던 사례자A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도덕적 충격을 받은 후 진보적 기독교 단체의 상근 활동가로 실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충격은 소성리에서 일어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작용되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실천인 ‘지킴이’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헌신과 적극적 실천을 책임지는 열정적인 활동가가 되는 사상적 토대는 기독교 정신이었으며, 조직적 기반은 진보적 기독교 단체였다. 하지만 사례자A는 조직에 소속된 상근 활동가의 역할을 사임하고, 느슨한 조직적 결합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²⁶⁾을 일부 받아 개별적 성격이 더 강한 지킴이로 소성리에 결합하였다.

2. 사례자B: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가

1) 성당을 통한 청소년기의 사회운동, 그리고 장년기의 사업 실패

사례자B는 1971년 경북 □□시에서 태어나서 대학 졸업까지 살았다. 학교 행정실에서

25) Jasper, James M, “The Emotions of Protest: Affective and Reactive Emotions in and around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Vol. 13, 1998, pp.397.

26) 사례자A는 180만 원 정도의 교육연금을 수령 받아 일부는 가족 공과금과 자녀 용돈으로 지출하고, 연금의 대부분은 소성리에서 지킴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사례자A가 소성리 활동을 위해 자비(自備)로 구입한 중고차의 유지 등 추가 활동비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월 30만 원씩 개인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한편, 진보적 기독교 연합 단체들에서 소성리 현장의 기독교 기도소를 지키는 파견자로서 사례자A에게 활동비를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 지원금은 소성리 상황실에 필요한 투쟁자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기독교 단체로부터 지원 받고 있지만 투쟁 자금으로 재후원하여, 실질적인 지킴이 활동에 조직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사례자A: 86).

근무하시는 아버지와 농협 직원이었던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셨으며, 세 살 많은 형님이 일찍부터 공부를 잘해 서울로 유학을 보냈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 허약한 체질과 내성적인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사례자B를 태권도 학원에 보냈는데 다행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소질이 있어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사례자B: 6). 부모님 모두 천주교 신자였으며, 사례자B도 태어나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다. 내성적인 성격도 성당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많이 바뀌고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의 천주교 □□교구는 1970년대부터 가톨릭 농민회를 비롯하여 농민과 노동자, 양심수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운동의 중심이었다.

제가 고등학생이면 87년 88년 89년 이때거든요. 고 1, 2, 3학년. 그런데 그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독재 시절 군부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항도 많았고 국민들의 저항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저항의 가운데에 천주교가 있었어요. 유명했죠. 농민회, □□농민회, 가톨릭 농민회하고 신부님들 정○○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좀 센 지역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 또 보면 이렇게 집회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고,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많이 봤었고. ...(중략)...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런 판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사회운동단체가 결성되던 고등학교 시절, 사례자B는 여러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천주교 마리스타 수도회에서 □□시에 지어준 문화회관 지하에서 대학생들로부터 풍물을 배우고, 사회비판을 담은 판 소리를 감상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친구와 자주 다니는 성당 맞은편의 사회운동 단체 사무실에 무작정 찾아가서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고, 활동하던 대학생들의 만류로 외부 활동보다는 주로 사무실에서 책을 읽어야 했던 경험도 있다. 풍물을 배운 문화회관과 무작정 찾아갔던 ‘최루탄 추방 운동 본부’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 단체 사무실도 나중에 모두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아, 친구들과 자신의 “이름이 털려서(사례자B: 8-9)” 경찰에서 전화가 올까 봐 며칠간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또한 성당의 골방에서 보았던 5·18민주화운동의 사진들은 청소년기의 사례자B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이후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소식을 성당 미사에서 유인물로 받아 볼 수 있었다. □□시에서 간혹 집회나 시위가 벌어질 때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면 시위 참가자들에게 성당으로 갈 수 있는 샛길을 안내하기도 했다. (사례자B: 9) 사례자B는 성당이 아닌 학교에서도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후 시기였기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시위에 함께 참가한 경험도 있었다.²⁷⁾

고등학교 졸업 후, 사례자B는 어릴 적 배운 태권도를 특기로 □□시에 있는 □□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하였으나 학과 분위기로 인해 조직적인 학생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91년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분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교에서도 한 대학생이 ‘노태우 군사정권의 공안정국 분쇄’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그 시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학내에 가까이 있었던 사례자B는 분노와 충격으로 시위에 참가한 수 많은 학생들과 함께 난생 처음 돌을 던지는 격한 시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분신으로 인한 집회 참가는 일시적이었으며, 사례자B는 대학 졸업까지 학생운동이나 다른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 무렵 사례자A는 공연 기획자가 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1990년대 초반 대학에는 예술경영과 관련된 전공학과가 없었던 시기였기에,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들이 공연 기획사에 취직하는 일은 흔한 취업 경로였다.

그냥 기획사, 아주 조그만 기획사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그냥 들어갔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맨땅에 헤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해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사장님한테 나 월급 안 받는다, 안 받고 일단 일 배우겠다. (사례자B: 13)

무작정 찾아간 공연 기획사는 마침 일손이 부족한 시기였기에 사례자B는 취업할 수 있었다. 이후 방송국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 전문지식을 쌓고 인맥도 만들어 동료들과 지역 문화축제를 기획하기도 했다. 코엑스의 무대에서 공연 기획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나중에는 기업체에서 바이어를 초청하는 국제회의 기획사에 채용되었다. 국제회의 기획사의 일은 보수가 괜찮았지만 자신의 스타일에는 맞지 않아 꽤 힘들었다. 많은 업무와 기업체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례자B는 순수예술이라 할 수 있는 대학로의 연극 뮤지컬 기획사에 취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공연 기획사를 차려 운영하였다(사례자B: 14-15).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했지만, 사업의 방향은 흥행과 수익을 쫓기보다 예술성과 작품성이 있는 극단과 낮은 수입을 얻는 거래를 하다가 결국 빚을 지고 폐업하게 되었다. 사업 실패 후에 사례자B는 다시 공연 기획사에 취직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만 집중하였으나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27) 1989년 전교조 결성과 동시에 가입 교사의 해직과 그에 대한 항의 집회가 잇따라 일어났으며, 이 시기에 사례자B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사례자B: 47).

나이 마흔 딱 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략)... ‘그냥 돈만 벌다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일,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볼까... (사례자B: 16)

사례자B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거주지역 천주교 교구의 진보적 사회참여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운동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 재학 중에 일시적으로 참가한 시위를 제외하면, 대학 입학 이후부터 취업 후 40세가 될 때까지 조직적인 사회운동에 참가한 이력은 없었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공연 기획에 종사하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폐업 후에 ‘돈만 버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성찰을 하기 시작하며, 돈벌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2) 돈벌이보다 의미 있는 삶: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

생업에 종사하던 사례자B가 사업 실패 이후 삶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SNS 트위터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글들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례자B는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고, 새로운 조직에 가입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사례자B가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2011년 겨울이었다.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글을 올리면서 사례자B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한미FTA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의 참가를 권유받았다. 우연히 나가게 된 촛불집회에서 사례자A는 자신과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당시만 해도 사례자B는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새벽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낮에는 극장 업무의 투잡을 뛰던 시기였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사례자B: 16-17)

촛불집회에서 자주 만나던 젊은 청년들은 사례자B에게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가입하기를 권유했는데, 그 단체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였다. 평통사는 자주, 평화, 통일, 비핵, 군비축소를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로 주된 회원들은 일반 직장인들이었다. 촛불집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평통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에 사례자B는 단체 가입을 며칠 주저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을 검색한 후 가장 실천력이 높은 평통사의 가입을 결심했다. 평통사에 가입 후 직

장을 다니면서 계속 참석한 촛불집회에서 우연히 제주 강정마을 주민의 정치 발언을 듣게 되었다. 사례자B는 이날의 촛불집회에서 제주 강정마을의 소식을 처음 접했다.

‘그런 데가 있어?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땐 이런 막 가서 같이 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했던 거죠, 뭔지. 그래서 (취업해 있던) 그 극장에다가 극장 대표한테 이제 휴가를 신청을 하고. 한 3, 4일 정도 했을 것 같아. 3박 4일이나 뭐 이 정도 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내려갔어. 휴가 겠. 그냥 갈 때는 그냥 놀다 노는 겠 가서 어떤 데인지 한번 볼 겠. (사례자B: 20)

사례자B가 우연히 내려간 그 시기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마을의 상징적 장소인 ‘구름비 바위’가 발파되던 2012년 3월이었다.²⁸⁾ 해군이 구름비 바위를 폭파하자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중단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들이 저지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물리적 충돌을 사례자B는 직접 체험했다.

하여튼 구름비 발파할 그 당시였어요. 이제 시끌시끌할 때였지. 발파하기 전. 그 내려가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뭐 집회도 가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살벌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경찰들 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본 게 ‘이거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몰랐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커졌고... (중략) ...

이런 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그냥 돈 벌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제주 강정마을로) 내려가 버렸어요. (사례자B: 21)

3박 4일의 제주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사례자B는 삶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고민하였다.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돈벌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삶의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사례자B의 선택은 ‘물질적 풍요’보다 ‘탈물질적 가치’를 선택하는 신사회운동의 참가자와 유사했다.²⁹⁾ 결국 1개월 뒤 사례자B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 강정마을에 다시 내려가 해군기지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가 되었다.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갈 당시 사례자B는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28) ““파과팡” 연쇄폭음... 10여m 흙먼지 치솟아 해상시위 ‘카약’ 전복...강정마을은 ‘전쟁터’”, 『오마이뉴스』 (온라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5611(검색일: 2024.07.27).

29) Inglehart,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257.

겨우 다 갠 상태였으며,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약간의 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 생활은 생계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결정이었으며, 이는 마흔이 되면서부터 사례자B가 시작한 고민 ‘돈 벌이보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결정이었다.

일정 기간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내려갔던 것 같애. (연구자: 그럴려면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근데 그때 안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때 그런 이제 내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평통사 가입을 고민할 당시)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리스트 업을 하면서 그걸 찾아보고 고민을 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를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선언은 안 했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후속 행동들이 나왔겠죠. (사례자B: 55-56)

사례자B가 결합한 강정마을에는 당시 100여 명의 지킴이들이 결합하고 있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참가자보다 개별적 참가자가 더 많았다고 사례자B는 기억했다. 사례자B는 체육을 전공한 자신의 적성을 살려 몸을 쓰는 실천에 망설임 없이 나섰고, 활동한 달만에 유치장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연행 사유는 지킴이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한 화약의 반입을 막기 위해 서로의 팔과 팔을 PVC파이프를 통해 체결하여 온 몸으로 공사를 저지하는 저항에 사례자B도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환경운동에서 주로 공간을 점거할 때 사용되는 전술 도구로 슬리핑 드래곤(sleeping dragon)이라고 불린다.³⁰⁾ 사례자B는 연행을 계기로 강정마을의 핵심 멤버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이후 더욱 적극적인 실천에 참가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강정 앞바다에 높이 20m 정도의 대형 방파제 구조물인 ‘케이슨’이 블록처럼 쌓이게 됐는데, 사례자B와 강정지킴이들은 케이슨을 운반하는 바지선을 점거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강력한 저항으로 신문³¹⁾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상적인 감시 활동과 높은 수위의 선도 투쟁에 적극 참가했던 사례자B는 강정마을 지킴이의 리더가 되었다. 2012년 12월부터 해군기지의 공사가 24시간 강행되면서 지킴이들의 감시 활동도 강도가 더 높아지면서 밤새 교대로 공사차량 반입을 막아야 했다. 2013년 4월에 동료들과 감시 활동에 참가하다가 피켓 시위를 하던 사례자B는 갑자기 들

30) Johnston, Hank, *What is a social movement?*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4, p.109. 슬리핑 드래곤은 해외 환경운동 활동가들에게서 시작된 저항 방법으로 PVC 파이프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두 명이 팔을 넣어 등산용 카라비너(암벽 등반 연결 도구)로 서로를 결박하여 외부 위협을 몸으로 막겠다는 헌신과 서로의 결속을 표현하는 사회운동의 전술 장비이다. 주로 오래된 나무 주위에 인간 사슬을 만들어 벌목을 방해하거나 중장비 건설 기계의 사용을 중단시킬 때 사용되었다.

31) “‘제주해군기지 중단’ 바지선 점거”, 『연합뉴스』 2012년 9월 6일.

이달친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지킴이 활동 중에 참가한 여러 실천 활동들이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 방해,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5개월을 복역하였다.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혼거방(다인실)으로 옮기면서 수감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사례자B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석방되었다. 타 지역에서 연대활동을 하다 수감된 사례자B를 석방시키기 위해 제주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에서 보석금 1천만 원을 대납해주었기 때문이다. 보석 석방에는 수감자가 제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되었기에, 사례자B는 더 이상 제주에서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지킴이 활동의 마무리를 채 제대로 못한 채 사례자B는 출소한지 3일이 되기 전에 제주를 떠나야 했다. 제주를 떠난 사례자B는 서울로 돌아와 평통사의 실무자로 제안을 받고 다시 사회운동단체의 상근자가 되었다. (사례자B: 30-31)

3) 소성리 상황실 실장에서 소성리 지킴이로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강정지킴이 활동으로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례자B는 서울로 올라가 평통사의 제안을 받아 평통사의 상근 활동가가 되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활동비를 받으며 상근자로 활동하던 중 2016년 사드 발사대가 성주군에 배치된다는 정부 당국의 결정이 났다. 외교 국방문제와 관련한 평화운동을 전개해 온 평통사는 이미 2012년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사드 레이더에 대한 내부 조사와 토론을 진행하였기에 사드배치 철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사례자B: 32).

이제 그때 이제 (성주군 주민들이) 서울역에도 올라오시고 할 때, 사실 그때 이제 시민 사회단체의 접근이 쉽지 않았잖아요. 외부 세력 막 이래서 그래도 굉장히 조심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도 어디 일부러 안 갔지. 그냥 밖에서 보기만 했지. 그리고 있다가 이제 평통사에서 이 사드 관련해서 문제 관련해서 성주로 내려가서 활동을 할 사람을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 위에서는. 그래서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적당했었고...(중략)... 이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가족 문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주에 내려가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 강정처럼.’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다고 그랬어 (사례자B: 33-34).

제주 강정마을에서 지킴이 활동의 경험이 있으며, 미혼에 전업 활동가인 사례자B는 평통사의 현장 활동 상근자로 적임자였다. 스스로 사무실 상근업무보다 현장 지원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례자B는 2016년 9월 사드배치지역이 성주군 초진면 소성리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결정되자 소성리 마을에 내려와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몇 달

은 서울의 단체 일을 겸하면서 일주일에 3일은 소성리 마을을 찾았다. 이때에는 사드 발사대가 놓이는 성주군 초전면의 마을 회관을 찾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사드 발사대의 위험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진행했다(사례자B: 34)

또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웃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들어가서 고스톱 치는 거 구경하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익히게 되고, 제 고향이 또 □□이다 보니까 말투도 비슷하고. 그래서 대부분 또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사드 반대 분위기가 강했으니까, 그렇게 몇 분 제외하고는. 하고 또 내용적인 결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한테 반박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홍보 활동에 전념을 했었죠 (사례자B: 35).

사드반대를 위해 서울에서 온 낯선 외부인에게 소성리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잠자리로 내어 주었다. 아무런 인맥 없이 찾아간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사례자B는 일상 생활의 성실한 태도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조금만 해가 이제 딱 보인다 이러면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밖에 청소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혼자 했어.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으셨나 봐요. 혼자 막 사부작사부작 이제 다 했지. 뭐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빨간 깃발(사드반대 깃발) 마을 걸러 있으면 그거 정비도 하고, 뭐 혼자 막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막 다 했고. (사례자B: 36)

사드배치 철회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외부세력’의 개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주투쟁위와 소성리 주민들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연대협의체를 결성했고 이를 사드투쟁의 6주체라 불렀다. 6주체에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사드철회 및 성주 성지수호 원불교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반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의 6개 단체가 참가했다. 6주체는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과 현장 집회를 주관했다. 사례자B는 평통사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행동 파견자로서 소성리의 상황실 상근자가 되면서 소성리에서 장기 거주를 시작했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평화행동. 기지 정문 앞에 이거는 상황이 없을 때 아침 ‘평화행동’ 하고. 이제 평화행동 끝나면 상황실 업무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집회 준비를 했던. 예전에는 집회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회 준비도 하고,

사람들 섭외도 하고, 출연자 섭외도 하고 그런 거 조율하고. 외부의 단체들 오는 이제 단체들이 요청하는 문의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 뭐 그런 거 회의하고. 그리고 주민들 또 요청하시는 부분들 또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오후 평화행동하고 (사례자B: 70)

평화행동은 매일 사드와 관련된 중요한 정치외교적 사안을 공유하고, 연대자의 발언과 구호로 이루어지는 약식 집회라 할 수 있다. 평화행동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은 상황실에서 결정하고 추진되었다. 일상적인 상황실 업무를 마치고 나면 매일 저녁마다 사례자B는 당일 있었던 실천들을 투쟁 일지 형식으로 적어서 관련 SNS와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 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소성리 상황실에서 팀장으로 결합했던 사례자B는 2021년 초에 상황실 상근자를 사임하고, 개인 자격으로 소성리에 남는 지킴이가 되었다. 상황실 상근자는 전국행동 파견자로서 적지만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받지만, 상근자가 아닌 개인 지킴이인 사례자B는 이제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 사례자B가 상황실 상근자의 역할을 사임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전국행동과 평통사에서는 사례자B가 소성리 업무를 접고 서울에서 올라와 활동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사례자B는 조직의 결정에 반하여 소성리에 계속 머물기를 바랐다. 이것은 사례자B에게 제주에서 강정 지킴이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보석 석방 이후 제주를 떠나야 했던 마음의 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사례자B: 37). 두 번째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장과 충돌이 반복되는 현장에서 활동가로서의 정신적인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한 4년.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한 4년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런 현장에서 4년 정도 하면 사실 좀 뇌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쉴 타이밍이에요. 근데 거의 뭐 5, 6년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런 사실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이 4년이 지나고 나면 뭐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게 이제 발현이 되거든요. 참고 참고 하다가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기는 거고. 우울증 생기고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완전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거지 (사례자C: 39-40).

2017년부터 소성리 마을에서는 사드 기지 공사 장비가 반입될 때마다 주 2~3회씩 정기적으로 경찰 병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물리적 충돌을 겪어야 했다. 때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서북청년회 등의 극우단체들이 소성리 마을을 찾아와 대형 집회를 개최하여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자극하는 일도 반복되었다.³²⁾ 뿐만 아니라

32) 정은경(2020), 앞의 논문, p.112.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마을주민들이 정기 집회를 중단한 시기에도 정부 당국은 경찰병력을 소성리에 집결³³⁾하여 미군기지 공사장비 반입을 시도하였고, 70세가 넘는 고령의 주민들과 소수의 지킴이들은 몸으로 막아야 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물리적 충돌과 저항은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에게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민감하고 불안한 현장의 충돌을 가장 일선에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실 상근자로서 사례자B가 겪어야 하는 부담은 매우 컸다. 상황실 팀장을 사임한 뒤, 사례자B는 소성리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지킴이가 되었다. 지킴이가 되면서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지속하면서, 소성리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지어 보니까 그게 이렇게 상쇄가 되더라고. 농사 지으면 오로지 작물만 보잖아요. 그리고 상황실도 나오게 되고 단체 실무자도 나오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일단 책임 소재가 거기서 많이 벗어나죠. 물론 계속하고 계시는 분³⁴⁾한테 좀 미안하지만 (사례자B: 40)

마을주민의 권유로 짓기 시작한 농사로 사례자B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사례자B는 상황실 업무를 그만두었지만 사드반대운동의 지킴이로서 일상적인 감시활동과 집회 참석, 그리고 상황실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도 지원했다. 연로한 부모님을 의식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지만, 사례자B는 소성리에 뿌리 내릴 것을 고민 중이다.

그냥 사드를 떠나서 그냥 소성리에 뿌리 내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 이 사드 문제가 앞으로도 한해 두해 결정날 문제가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이 사드 문제가 어떻게 잘 돼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다른 현장에 상주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그거는 조금. 이제 나이나 뭘로 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끝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례자B: 41)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처럼 돼 버린(사례자B: 40)” 사례자B는 소성리에서 사드 문제의 끝을 소성리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사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소성리에 남아 주민으로서 다른 지역 주민운동을 위한 연대 활동을 실천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자B와 인터뷰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 소성리 마을을

33) “대구경북 대책위 “한밤중 기습...주민 무시한 폭력 행위””, 『경북일보』 2020년 6월 1일.

34) 사례자B가 상황실을 사임한 이후 소성리 상황실에는 원불교 대책위의 강현◎ 교무와 소성리 대책위의 박수△ 대변인, 김천 주민 1인이 결합하여 회의 체계를 유지했다(사례자B: 87).

찾았을 때, 사례자B는 몇 달간 투병 후 요양을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례자B의 본격적인 사회운동 참여는 40세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생업에 종사할 시기에도 수익이나 흥행을 추구하기보다 작품성과 예술성 있는 단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선택했다. 이미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추구는 취업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구술을 통해 드러난 가치관 형성의 큰 원인은 청소년기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지역사회 종교운동의 조직적 역량이 될 수 있다. 사례자B의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는 1980년대로 독재정권과 그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으며, 지역에서 사회운동의 산실 역할을 하는 천주교 □□교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종교 윤리와 사회운동의 정당성을 내면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대학 진학, 취업, 사업 실패, SNS를 통한 사회운동 단체회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결합되어 사례자B는 지킴이라는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가가 될 수 있었다.

3. 사례자C: 삶의 방식으로서의 활동가

1) 시골 깡촌,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에서 환경운동

사례자C는 1975년 경남 ○○군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중학교까지 ○○군에서 다니다가,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 부산으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다. ‘깡촌’으로 기억하는 고향집의 형편이 어려웠기에, 학교 다니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준 것 외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³⁵⁾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집안도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사례자C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업계 특례로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을 통해 학생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제가 다녔던 학교 선배들하고 저하고 같이 다녔던 학교와 대학교가 가까워요. ...(중략)... 선배들 만나서 술 먹고 이리다가 이야기 듣고 자연스럽게. 몰랐던 것들을 자기들이 이야기 해 주고. ...(중략)... 딴 나라 이야기 같던데.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히 영웅담이죠. 자기들 경찰하고 맞다이(맞짱) 떠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웠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해 주면 신기하죠. (사례자C: 81)

35) 사례자C의 전체 녹취록 88페이지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에 대한 구술은 1페이지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장 과정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도 별다른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 (사례자C: 75)

고등학생이었던 사례자C는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선배들로부터 학생운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몇 개의 자격증이 있던 사례자C는 부산의 ○△대학에 진학했으며,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핵 싸움 했었어요. 핵발전소 싸움 했었어요. 부산에 저희 선배들이랑 하면서 현장에서 고리 원전, 고리 핵발전소 싸움. 후배들이랑 하면서 계속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이랑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같은 학교 선배는 아닌데 XX대학교 다니던 선배가 있는데 저희가 같이 반핵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때 ‘에너지정의행동’이라고 지금은 지금 에너지정의행동이죠. (사례자C: 9)³⁶⁾

지역 대학 선후배들과 함께 결성한 ‘에너지정의행동’은 사례자C가 이후 20여 년간 참가하는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에 중요한 연결망으로 작용하였다. 사례자C는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을 알리는 반핵운동과 노학연대, 학생회 등 여러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3학기의 수업만 인정받고 제적당했다. 대학에서 제적을 당한 이후에도 에너지정의행동에서 반핵운동을 지속했다. 사례자C는 대학시절부터 본명이 아니라 ‘짱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다. 이 별칭은 대학 재학 중 시위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보도 블럭을 깨서 던지는 저항에 적극 참여하는 사례자C에게 선후배들이 붙여준 것으로, 나중에는 본명보다 ‘짱돌’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다. (사례자C: 35)

2)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위한 7년 간의 연대자

1998년 대학 동료들과 환경운동에 참여하던 사례자C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군 일대의 바다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생업의 터전인 갯벌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해양 생태 환경 파괴 방지와 갯벌 살리기를 목표로 하는 환경단체가 결합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이후 새만금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사례자C는 새만금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계화도³⁷⁾에서 갯벌을 지

36) 사례자C가 선배들과 1999년 만든 환경운동 단체는 ‘청년환경센터’이며, 2010년부터는 ‘에너지정의행동’으로 단체명을 변경하였다. 출처: 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 <http://eco-center.org/>

37) 계화도는 원래 섬이었으나 1968년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이어진 농경지가 생겼으며, 한편으로는 갯벌로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이후 2006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일환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어 바다로부

키기 위한 주민투쟁의 연대자로 들어가 7년을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저항을 지속했다.

거기서 조개도 잡고 활동도 하고. 그때는 이제 새만금이 한참 물막이 공사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어업 보상권도 나오고 맨손 어업 보상권도 나오고. 삼촌들 동네 삼촌들 있잖아요. 형님들이랑 이모님들 그때 한참 싸울 때였어요. 보상 가지고. 배 보상도 하고. 그때 매일 해상 시위 가고 또 군청 가서 싸우고. 그게 했던 것들이 쪽 연결돼서 했수는 저희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들어간 걸로 기억되거든요. 계속 거기에서 쪽쪽쪽 새만금 싸움하면서 반핵까지 쪽 연결한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위도에 핵폐기장 짓는다고 했을 때. 위도, 위도에. 그 싸움이 새만금 싸움으로 갔는데 그것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7년 안에요. (사례자C: 10)

사례자C는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의 연대활동을 통해 새만금 반대운동을 처음 접했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계화도에 들어가 연대자³⁸⁾가 되었다. 계화도 거주는 단체의 조직적 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실천이었다. 계화도에는 사례자C와 같이 개인 자격으로 찾아온 연대자도 있었으며, 서울의 환경운동 단체에서 파견나온 활동가들이 몇몇 이미 들어와서 연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³⁹⁾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해 계화도로 들어온 3~4명의 연대자들은 마을 주민들이 내어 준 어업공판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식사 속에서도 7년⁴⁰⁾ 동안의 연대자 활동을 “재밌었다(사례자C: 42)”고 회상했다. 새만금 반대운동을 위해 사례자C와 계화도 연대자들은 새만금 ‘살금’ 영화제, 서울의 인디밴드를 초청한 ‘락페스티벌’, ‘장승 기원제’등을 개최하여 외부로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사례자C: 24-25).

새만금 간척사업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는데, 어업 형태에 따라 보상의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다. 선박을 보유한 ‘선주’에게는 많은 보상이 주어졌으며 반면에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맨손 어업’ 주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액이 제시

터 완전히 격리된 내륙이 되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검색어 ‘계화도 간척지’) 이전 개발 사업으로 이미 간척사업을 경험한 계화도 주민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완전한 육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었으며, 갯벌을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단체들이 계화도 주민 일부와 연대하여 새만금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다.

38) 사례자C가 새만금 반대운동을 위해 ‘계화도’로 이주한 당시에는 ‘지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이었으며,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연대자’로 부르곤 했다. (사례자C: 5)

39) 사례자C가 계화도를 찾았을 때는 연대자 수가 3~4명이었으나, 환경단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가장 많은 연대자가 머물렀을 때는 20명이 넘게 있기도 했다. (사례자C: 23)

40) 사례자C는 새만금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계화도에 1998년부터 2004년 혹은 2005년이라고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사례자C가 ‘7년’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반복하였기에 이 글에서는 구술자의 표현인 ‘7년’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다.

되었다.

이제 그 보상이라는 문제가 이제 배 가진 선주들이라고 하잖아요, 바닷가니까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고 배 보상은 상당히 커요, 보상 중에서.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맨손 어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레’라고 있어요. 이렇게 새만금에 되게 유명한 게 백합이라는 조개가 있거든요. 그 백합이라는 조개를 갖다가 이렇게 그레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하면 그게 탁!탁! 걸려요. 그렇게 맨손 하는 이모님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은 반대하셨거든요. (사례자C: 13)

경제적으로 약자인 맨손 어업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새만금 반대운동을 이어갔다. 연대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계화도로 들어왔기에 따로 활동비를 지원받지 않았다. 계화도 주민들은 연대자들을 갯벌 해투질에 참여시켜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도록 권해줬으며, 반찬이나 부식을 숙소로 가져다 주기도 했다. 사례자C는 계화도 주민들을 ‘이모님’, ‘삼촌’, ‘형수’, ‘형님’ 등의 친족 호칭으로 불렀다. 평생 같이 살아온 이웃 주민들도 보상 형태에 따라 등을 돌리는 현실에서 안면도 없던 젊은 청년들이 멀리서 찾아와 투쟁에 동참하는 ‘연대자’가 되자, 주민들은 가족과 같은 보살핌으로 보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대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가족’ 같은 투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저항에 동참한 마을 주민과 연대자 사이의 끈끈한 연대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장기화 되자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던 동지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첫 번째 아픔은 계화도를 찾은 여성 연대자로, 찬성측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갈등과 개인적인 일이 겹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두 번째는 새만금 반대 투쟁위 사무국장의 아내였던 ‘형수’의 죽음이다. 평소 연대자들을 잘 챙겨주던 마을 주민이 갯벌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연대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던 마을 ‘형님’의 죽음이다. 보상을 둘러싸고 동네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이 주민은 음주와 흡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네 번째는 이웃 마을에서 함께 투쟁하던 부안 농민회 사무국장이 암으로 사망한 것이다.(사례자C: 14-21) 여러 해 동안 일상을 나눈 동지들의 연이은 죽음에 사례자C는 “동지들의 죽음이 외부와의 투쟁보다 더 힘들었다(사례자C: 18)”고 말했다. 네 명의 동지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사례자C는 계화도를 떠나지 않고 반대운동을 지속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한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자 주민 보상이 마무리되고, 이웃한 부안군의 핵폐기장 설치 반대운동도 종료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대책위도 해산하게 되었다.

뭔가 짝짝하죠. 거의 뭐 패배자 수준으로 나왔으니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저희 들어갈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연대하러 간다. 그냥 뭐 하나 보태러 간다. 그 때도 거의 뭐 사람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사례자C: 24)

사례자C의 원래 목적은 간척 사업의 실질적인 저지보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들어가 주민들과 연대자로 살다가 30세가 되어서 계화도를 나왔다. 밥과 반찬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하며, 함께 갯벌에서 일하며 일장과 새만금 반대운동을 공유했던 주민들과의 경험으로 사례자C는 최근에도 계화도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고 올 정도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새만금 반대운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례자C는 시간을 내어 부산의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에 참가했었다. 계화도에서 나온 사례자C는 대학부터 결합해 왔던 에너지정의행동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결합했다.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환경운동단체들이 고속전철 터널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환경 훼손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터널 붕괴 위험을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다.⁴¹⁾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이 청와대 앞에서 전개되던 시기에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위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천성산 반대운동에도 동참하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게 싸움이 저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현장을 가면. 아까 새만금 갔더니 반핵, 부산에 있던 반핵에 잠깐 멈추고, 새만금 갔더니 그 반핵(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터지고, 하고 내려왔더니 환경부(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로 다시 왔는데 서울 갔더니 이라크 파병 친구들하고 또 반전 운동 같이. (사례자C: 3)

천성산 터널 공사가 완공되고 터널은 예정대로 개통되었다. 천성산 투쟁이 종료되자 사례자C는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을 통해 알게 된 이라크파병 반대운동 단체와 함께 ‘유랑단 평화바람⁴²⁾’에 결합하여 전국을 다니며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했다. 유랑단 평화바람의 전국순례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경기도 평택의 대

41) 정익재,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 이슈 증폭 현상의 정책적 의미 -천성산 원효터널공사 사례 분석”, 『한국 정책학회보』, 제19권 4호, 2010, p.332.

42) “8도유랑단 ‘평화바람’ 물러나간다”, 『경향신문』, 2003년 11월 14일.

추리였다.

3) 평택 대추리에서 최초의 지킴이로

2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미군기지를 평택 대추리에 건설하려는 국방부의 정책에 대추리 마을주민들과 반전평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추리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례자C도 유랑단 평화바람과 함께 대추리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저항을 지지했다. 잠깐 머무르기 위해 대추리를 찾았지만 부족한 자원 속에서 고립된 투쟁을 전개하는 주민들의 저항에 많은 활동가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주민들과 함께 했다.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공병부대가 와서 철책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싸우기 시작했죠. 철책 하는 데 가서 안 된다고 드러눕고, 논두렁 위에서. 아니면 사지 끌러가지고 논두렁 위에 풀 베이면서 끌러나오고, 늘 그거 었어요. 아침 먹으면은 이제 보초로 워낙 넓어 가지고 어디에서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이쪽에서 이쪽 갔는데 차로 10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서로 열 명도 안 되는 인원이 항상 보초 서는 거예요. (사례자C: 36-37)

넓은 부지에 대한 철책 공사가 시작되자 활동가들과 마을주민들은 철책 공사를 막기 위해 몸으로 부딪히며 저항했고,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조직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갔다.

이제 경찰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밤마다 난로 피고 보초를 썼어요. 그때부터 지킴이, 지킴이, 지킴이. 그때 한 거예요, 동네분들이. 각 군데를 갔다가 들어오는 골목이 수십 군데가 되니까 다 지키는 거예요, 길목마다. 그래서, 그리고 비상연락망하면은 이장님 방송 사이렌 울려주시고, 교대로. 밤에 낮에는 뭐 보이니까. 애들 낮에는 안 와요(41).

미군기지 공사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24시간 전개하면서 대추리 마을주민들은 연대자들을 가리켜 ‘지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킴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는 본 연구에서 한국 사회운동에서 지킴이의 명칭이 처음 사용된 대추리 지킴이 경험이 있는 활동가를 만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대추리의 주민운동은 2006년 5월 4일 경찰과 용역 인원이 마을에 투입되어 행정대집행이 진행되어 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킴이 500여 명이 연행되는 것을 계기로 약화되었다.⁴³⁾ 이후 마을 주민 다수가 보상에 합의하면서

43) “평택 시위 관련 37명 영장.....대추리 다시 긴장 고조.” 『연합뉴스』, 2006년 5월 6일.

지킴이들도 마을 주민의 권유에 의해서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사례자C는 ‘함께 싸워준 지킴이들을 두고 차마 떠나지 못하겠다’는 마을 주민의 진심이 담긴 권유(사례자C:39)로 대추리를 떠나야했다. 사례자C는 신대추리 입주단지로 이주한 마을 주민과 아직도 연락하고 있으며, 가끔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1년 가량의 대추리 지킴이 생활을 통해 사례자C는 새만금 계화도에서와 동일한 연대감을 대추리 주민들과 형성하고 있었다.

대추리를 나온 사례자C는 반세계화, 국민 기업 살리기, 문화 주권 지키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 ‘대항 지구화 행동 (Counter-Globalization Action, 이하 CGA)’이라는 사회운동단체 활동에 참가했다. CGA는 부산에서 학생운동할 때 만났던 선배들이 서울에서 만든 사회운동단체였으며, 사례자C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CGA에서 상근자로 활동하였다. 대학 입학부터 쉬지 않고 사회운동을 지속해온 사례자C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휴식기에는 강원도 ##군의 ‘산촌유학센터44)’에서 돌봄 교사로 지냈으며, 인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며 생태교육과 평화교육을 진행했다. 이 시기는 사례자C가 단체 활동비를 제외하면 생애 최초로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은 때가 되기도 했다. (사례자C: 45)

4년의 휴식기이자 취업기를 마치고 사례자C가 다시 찾은 주민운동 현장은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시작된 경북 영덕군이었다. 영덕군에는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45)가 2015년 11월 민간 주도로 진행되었다.

제가 또 영덕에 후배가 있어요. 2015년도에 영덕에 핵폐기장이 들어선다고 후배한테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영덕으로 갔죠. (웃음) 2014년 말. 제가 아까 처음에 초창기에 운동했던 게 탈핵이잖아요. 그래서 후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중략)... 한 번 오라고 해서 놀러 갔더니 핵발전소가 삼척하고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싸워볼까 하다가. 거기서 계속 탈핵 운동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울진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결합이 돼서 영덕 주민투표를 2015년 11월 12일, 13일46) 이틀 동안 할 때 그 준비를 저희가 연초부터 한 거예요. (사례자C: 49)

44) 산촌유학센터 혹은 산촌유학교육원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산촌의 생활 및 지역학교와 시골살이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사례자C:46)을 말한다. 기간은 기관에 따라 2박 3일, 또는 방학기간, 1년 이상 등 다양하며,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했다.

45)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경북도민일보』 2015년 10월 14일.

46) 위 각주 47)과 다른 신문기사들에 따르면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술자의 인터뷰에서 세부적인 날짜의 착오가 있을 수 있기에, 구술자가 기억하는 날짜를 그대로 인용했다.

사례자C는 영덕핵발전소건설 반대위원회(이하 영덕 대책위) 사무실로 지인과 함께 매일 출근하며 활동을 도왔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매일 개최했으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주민설명회와 집회 등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의 결과는 주민 32.53%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핵발전소 반대 의견이 91.7%를 차지⁴⁷⁾하여 반대의 의견이 우세했다. 투표 결과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2016년 9월 영덕과 가까운 경주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하여 영덕군수가 사실상 영덕 핵발전소 건설을 원점화하였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종료되었지만 사례자C는 영덕에 계속 거주하며 영덕군민이 되고자 했다. 사례자C가 한곳에 정착하기를 바란 친형은 농지를 구입하여 사례자C에게 임대해주었다. 사례자C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영덕으로 옮긴 것도 이 시기이다.

사례자C는 새만금의 계화도에서 해루질과 낚시, 농사를 지었으며, 영덕에서는 농지를 임대하여 직접 농사를 지으며 현장 주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저는 현장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요. (연구자: 영덕 말고 새만금에서도 농사를 지었나요?) 예. 농사 지었어요. 이모님들이랑 배 타고, 삼촌들이랑 고기도 잡으러 가고, 아침에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바다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랬어요. 그물로. (연구자 :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분들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현장 들어갔는데,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왜 이 분들이 이 바다를 지키려고 하는지 내 눈으로 봐야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이 바다를 지키려고 하는지. 이 바다 말고 다른 바다 가서 살면 되는데. (사례자C: 63-64)

영덕에서 거주하면서 사례자C는 전국의 크고 작은 연대 현장을 방문하며 지원활동을 펼쳤다. 2016년 1월에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부산 기장군을 찾아가 연대 활동에 참여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사드배치 철회운동이 발생한 성주군을 주 1회 방문했다. (사례자C: 60)

4) 소성리의 지킴이, 현장을 지키는 진정성

사례자C는 영덕군에서 성주군 소성리를 매주 방문하여 사드 장비의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운동을 지원하였다. 영덕군에서 소성리까지 자동차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주 찾아와 연대활동에 참가하는 사례자C를 신뢰한 소성리 마을의 이석○ 이장은 소성리 마

47) “[발언대]정부, 영덕 주민투표 결과 받아들여야.”, 『경남도민일보』, 2015년 11월 23일.

을로 이주를 권하였다. 2016년 7월부터 꾸준히 성주를 방문했던 사례자C는 2017년 7월에 소성리로 완전 이주하여 지킴이 숙소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지킴이, 외부 시민사회단체 연대자들과 종교인들이 소성리 마을에서 매일 사드 공사 차량의 기지 반입을 감시하고 크고 작은 집회에 참가했다. 일상적인 지킴이 활동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빌린 농지에서 고추 농사 등의 밭농사를 2년 동안 경작했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의 소개로 소성리 마을에 있는 된장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소성리의 공장에 취업한 사례자C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지킴이 활동이 가능해졌다. 국책사업이나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은 감시활동과 그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장기간 반복되기에 참가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이 매우 높다. 20대부터 휴식기 4년을 제외하면 사례자C는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주민운동의 최전선에서 지킴이로 활동해 왔다. 높은 불안정성과 정신적 고통을 알면서도 사례자C가 소성리에서 지킴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현장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장의 삶을 모르면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연대하러 오면 편하긴 편해요. 네 솔직하게. 한 번 왔다가 그냥 인사하고 몇 시간 있다가 가면 편해요. 근데 그분들하고 삶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왜 이분들이, 왜 싸우는지를 그 내면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한테도 최소한 한 달은 같이 살아봐라. 들어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장 활동과 현장에서 싸운다는 놈들이 하루, 이틀, 잠~간. 어디 뭐 유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아니더라고요. (사례자C: 63)

사례자C는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활동가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지킴이와 같이 마을 주민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소통이 동반될 때, 주민운동에 참가하는 활동가는 저항과 실천의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한 거.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활동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쪽~ 이어진 것 같아요, 흐름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살겠다고 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그냥 무계획 속에 이렇게 현장이 있으니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았던 게 제 삶의 일부분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직장, 학교 졸업해서 그냥 우리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학교 들어가서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다니듯이 저는 그분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거에 제 삶은 지금까지 살았던 게 그렇게 똑같

다.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사는 것처럼 제 삶이 현장에서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쪽쪽 갔다고 느끼는데. (사례자C: 83)

사례자C는 20대부터 40대가 된 현재까지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사회운동의 현장을 찾아가 투신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에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학생운동출신 활동가와 유사하다. 하지만 1980년대 노동현장에 투신한 활동가들의 위장취업은 사회변혁을 위한 조직적 결정⁴⁸⁾이었던 것에 반해, 사례자C의 현장 참여는 조직적 지원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개인적 결정에 기인했으며 운동의 목표도 사회변혁의 직접적인 쟁취보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대 이후 지역주민운동의 현장 활동가로 살아온 사례자C에게 저항은 삶의 한 방식이었다. 바람직한 활동가로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활동가의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현장 주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할 뿐이었다.

III. 지킴이와 주민 통합: 외부인에서 반쪽 주민으로

국책사업이나 기지 건설로 인한 위험 부담은 점차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떠넘겨져 가고 있다.⁴⁹⁾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지킴이는 저항 자원이 부족한 지역주민운동 현장을 찾아가 인적·물질적 지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저항 담론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⁵⁰⁾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여 부족한 동원의 자원을 충족시키는 활동가라는 단일한 속성으로 지킴이를 설명하는 것은 미시동원의 차원에서 지역주민운동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운동의 동학을 놓치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운동이 전개되는 소성리는 피해 당사자인 마을 주민과 저항을 지지하는 종교인, 인근 주민, 사회운동 단체의 연대자들, 그리고 지킴이들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일상생활과 저항 실천 속에서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교섭과 합의로 통합을 이루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 장에서는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저항 공간에서 주고 받은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인’이었던 지킴이들이 부분적인 ‘주민’이 되는 변화

48) 유경순,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학연대활동과 노동현장투신 방식의 변화”, 『기억과 전망』, 제3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p.201.

49) 이상현 외(2014), 앞의 논문, p.267.

50) 정영신(2018) 앞의 논문, 정은경(2020) 앞의 논문, 최혜영(2021) 앞의 논문.

의 과정에 주목했다.

소성리 마을에서 전개되는 저항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첫째, 소성리 지킴이들의 헌신적인 실천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 최초의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곳은 소성리가 아니라 성주읍 성산리의 성산포대였다.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성주군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드반대운동이 언론을 통해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왜곡 보도되는 것을 우려하여 ‘과란나비리본’ 등의 지역인 식별을 통해 외부 단체의 참여를 배제했다.⁵¹⁾ 성주투쟁위를 비롯한 김천대책위와 원불교대책위는 사드반대운동이 위험시설을 회피하는 님비(NIMBY)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저항 담론을 내세우면서 ‘외부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부정했다. 이후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사드배치 6주체가 소성리에 결성되었지만, 개별적으로 소성리를 찾은 지킴이들은 여전히 ‘외부인’으로서 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지킴이들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성실함과 솔선수범을 보였다. 사례자B가 처음 소성리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안면도 없는 주민들과 있으면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을회관을 청소하며, 마을의 선전물을 수리 보수하는 성실함을 보였다(사례자B: 36). 사례자A는 자발적으로 아침마다 기도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기도회에 결합하면서 소성리 마을의 일상적인 아침 실천인 평화행동이 되었다. 기도회 외에도 사례자A는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마당 난로에 쓰일 장작을 매일 저녁 마련했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만들어 조달하며 힘든 잡무를 자처했다(사례자A: 93). 지킴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주민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지속했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전교조 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 경험을 가진 지킴이들은 소성리 마을에서 지난 경험을 통해 얻은 전문적 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소수 주민이 대부분 고령자인 조건에서 지킴이는 돌발적인 상황이나 물리적 충돌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동원 가능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다.

지금 이제 매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렇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싸울 능력이 안 되니까 화요일 목요일에 집중해서 싸우고, 월수금은 이제 할머니들은 좀 쉬셔라 그러고. 이제 지킴이들하고 외부에서 연대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진밭교에서 평화 행동을 했는데. ...(중략)... 언젠가 새벽 3시쯤 들어갔었나? (사드 공사를 위한 유류차기) 그렇게 드나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결사적으로 막자고 버리고 별려서 두세 번을 싸웠어요. 심야 시간대에 그렇게 싸우니까, 더욱 격렬해지고 더욱

51) 정은경, “지역주민운동을 통한 주민되기: 성주사드배치철회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제23권, 제2호, 2022, p.21.

위험해지고, 그래서 할머니들까지 실신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 가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례자A: 174-175).

지킴이들이 행동하는 거는 모범적으로 해요. 먼저 몸 안 아끼고 몸 안 아끼고, 하도 경찰에 잡혀가고 잡혀가는 거 그러면, 벌금이 있으니깐 강한 대시를 못해요 (주민E: 20).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기적인 집회가 중단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연대 방문도 축소되어 일상적인 장비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은 더욱 힘들어졌고, 일상적으로 마을을 지키는 활동가라는 점에서 지킴이의 비중이 더 커졌다. 본 연구를 위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사례자A는 컨테이너 밖의 도로에 드나드는 차량에 시선을 주며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2021년 5월부터 사드 기지 공사 차량 진입이 정례화되어 매주 2회 주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소성리 마을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며, 지킴이들은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집회 물품 등의 준비를 담당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6시를 전후한 시간에 주민들은 거리를 막고 차량 진입 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 병력들은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과 지킴이, 연대자들을 에워싸고 해산 명령의 방송을 한 뒤, 참가자들을 한 명씩 들어 강제 이동시켜 해산시킨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는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바로 옆 천막에서 집회 마무리를 하고 마을회관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마련한 식사를 함께 나눈다. 식사 후에 참가자들은 직장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고, 몇몇은 남아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회관 앞에서 도로의 차량 감시활동을 지속했다.⁵²⁾ 정기적인 실천 활동을 마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고령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며, 김천과 초전면, 성주군에서 온 이웃 주민들은 자신의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일정에 결합한다. 하지만 지킴이는 일상과 실천 활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주의 목적이 지역주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지킴이는 개인적인 공간과 사적인 시간을 소성리 마을 안에서 갖는 것이 어렵다. 일상생활과 저항 실천이 분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킴이 활동은 일반적인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삶과 구별된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소성리 마을 주체의 동학은 지역주민들의 지킴이 수용과정들을 들 수 있다. 아무런 연고가 없이 이주해 온 지킴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숙소와 식사의 해결이다. 사드배치 철회운동을 위해 찾아온 외부인들에게 소성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숙소로 내어 주었다.

52) 참여관찰. 2022.12.27. 소성리 평화행동.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주민 회의에서는 사드가 여기에 배치되고 나서 동 총회에서 ‘사드 반대 단체 오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을 우리가 사용하게 허가를 다 한다’ 마을 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킴이들이나 맘대로 회관을 사용할 수가 있지. 저 역시 마을의 이장이지만 내 혼자 직권으로서 이 회관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배려가 되는 거죠 (주민D: 12).

소성리 마을 주민들이 연대자들과 지킴이들을 마을에 수용하는 과정은 체계적이었다. 마을 총회를 거쳐 사드배치 반대운동에 참가하는 연대자들의 마을회관 사용을 허용하였기에 이용하는 지킴이와 연대자들도 심리적 불편함을 덜 수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견 충돌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소성리 마을 주민들이 타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호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이장인 주민D를 비롯한 부녀회장과 마을 주민 일부가 1980년대 가톨릭농민회 활동 등의 이전 사회운동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게 그래도 농민운동했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을. 다 지금 경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왔는 주민들도 깜짝 놀래. 어떻게 지금 이렇게 버티느냐. 나는 그게 이제 농민운동의 뿌리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운동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내고 (버티내고),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있다고 봐야 하지. 그거 없으면 우리 동네도 벌써 깨졌을 거예요 (주민D: 17).

소성리 주민들은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소성리 마을의 빈집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다. 조사 당시에 사례자B와 사례자C는 마을 주민이 내어 준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사례자A는 개인적으로 마을 빈방을 임대하기도 했으며, 조사 시점에는 원불교 교당으로 쓰이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사례자A는 마을회관의 공용 화장실과 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킴이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알아차린 주민들은 먹거리를 나누는 이웃이 되어주었다.

○○할배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봄에 길에서 나물을 뜯어 가지고 그 나물을 저한테 갔다 씻어 먹으라고 하지. ...(중략)... 이번 김장철에 김장 담갔다고 한 포기씩 한 포기씩 갖다 주시는데, 냉장고가 작아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거는 나중에 다 떨어지면 말해. 그때 줄게.’ (사례자A: 190).

반찬과 먹거리를 나누고 마을 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사례자C는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에서 직전에 주민이 부탁한 사적 업무를 도와주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동네 어르신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 할아버지 계시는데 동네에, 별초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별초 좀 해달라고 하셔서 (사례자C: 2)

사드 장비 반입을 감시하고 사드의 위험을 알리는 다양한 집회 외에도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들은 신념을 지키는 사회운동가로서 지킴이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했다.

제가 볼 때는 저 양반들은 제가 처음부터 운동가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나는. 이제 환경, 짱돌 같은 경우도 원래 환경 운동가였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평화 운동가 이런 분들이니까 이제 평화를 위해서 사드에 반대하고 하니까 자기도 운동 차원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주민D: 17)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해서 한다 하는 걸 A장로 (사례자A) 이 친구, 이 동생은 정확해요. 국가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 마인드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퇴직을 하고 지금 미리 명퇴를 했더구만. 지 말마따나 명퇴를 하고 왔어요. 네 거기는 대단한 친구지, 대단한 친구야. 내가 보건데 존경스러운. 손 아래지만. (주민E: 24)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지킴이의 일상생활과 저항 실천에 주민E는 손 아래지만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했다.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차량과 미군 차량이 일상적으로 마을 앞을 지나가고, 이를 막기 위한 20~30명의 주민들과 연대자, 지킴이들은 때로는 쇠사슬로 목을 두르기도 하고, 격자 틀에 몸을 넣어 자신의 몸으로 바리케이트 만들며 저항을 이어오고 있었다.⁵³⁾ 물리적인 시간을 비율로 보면 일상의 시간이 투쟁의 시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투쟁과 일상 생활을 공유한 지킴이들은 부분적으로 자신을 ‘마을 주민’이라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킴이들의 주민 정체성 형성이 소성리 마을에서 발생한 주체의 동학 세 번째가 된다. 사례자A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53) 이재각(2023), 앞의 논문, p.543.

소성리 마을로 옮겼으며, 사례자B와 C는 소성리 마을에서 취업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에 뿌리 내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반은 주민이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거 생각 안 하면 못 살죠. 나는 연대자다 외 부인이다 이렇게 살면 내가 못 살죠. 반쪽은 걸쳐놓고 살아야죠. 연대자다 그러면은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주민이 아니고 그냥 도와주러 온거다 이 느낌이거든요 (사례자C: 75)

마을 안에 있는 된장 공장에 취업하여 소성리 지킴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자C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반은 연대자, 반은 소성리 주민’이라고 말했다. 사례자A와 사례자B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주민되기를 실천에 옮겼다. 사례자A는 안정적인 숙소 마련을 위해 소성리에 주택을 구입하였고 공사를 계획 중에 있었다. 사례자B도 장기적으로 소성리 주민이 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계획이라고 하면 일단 소성리에서 사드 투쟁 계속할 거고, 소성리에 자리 잡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주민으로 자리 잡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안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다른 지역의 주민운동에 대해서) 연대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계속할 생각은 있고요(사례자B: 80-81).

이제 주소도 이리 다 당장 주소도 여기 해 놓고 생활을 하고 있어. 주민이라고 봐야지 (주민D: 15).

지역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지역 정체성’은 개인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를 특정 지역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는 애착 혹은 귀속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은 개인마다 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생애에서 변화할 수 있다.⁵⁴⁾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스스로 자신이 특정 지역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내적 인정과 자신이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우리 지역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외적 인정으로 나뉠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처럼 사례자B는 소성리에 ‘주민’으로서 끝까지 남을 것이라는 내적 인정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례자 A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소성리로 옮기고, 영구 기거할 주택을 마련하는 ‘소성리 사람’이라는 내적 인정이 이미 자

54) 이강형, 문종대, “지역민들의 ‘지역 정체성’이 지역뉴스 시청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6권 제3호, 2006, p.350.

리잡혀 있었다. 한편, 소성리 마을 토박이인 주민D는 소성리로 주소를 이전한 사례자A와 소성리 공장에 취업한 사례자C를 주민으로 본다고 말하며 외적 인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저항 실천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지킴이들은 헌신과 성실함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갔으며, 마을 주민들은 공식적인 체계와 인정 있는 마음으로 지킴이들을 수용해 주었다. 그 결과 지킴이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성리 마을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뿌리 내릴 수 있는 ‘소성리 주민’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긴 기간을 거쳐 지킴이와 마을 주민들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주민운동의 현상이 주민과 지킴이의 기계적 결합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와 내부자가 서로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끊임없는 교섭의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외부 지킴이가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일부 혹은 온전히 형성할 수 있는 변증법적 동학이 일어나는 사회변동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IV. 맺으며

이 연구는 사드배치 철회운동을 위해 소성리에 장기 거주하며 지역주민운동에 참여하는 지킴이들의 생애사적 의미를 분석하고, 저항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킴이와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지킴이 3명의 생애사 조사를 통해 정리되는 개별적 생애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자A의 생애를 관통하는 사상적인 근거는 기독교 윤리였다. 차별 없고 이타적인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타협을 제시하는 전교조 활동을 중단했다. 50대에 명예 퇴직한 사례자A가 소성리의 지킴이가 되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다. 사례자A에게 지킴이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퇴직 교사로서 자신의 지난 교단 생활을 성찰하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례자B는 지방 소도시에서 성장하였으나, 지역 천주교 교구의 영향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간접적인 사회운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사례자B는 공연 기획자이자 공연 기획사 대표로 생업에 종사하던 중 돈벌이에 매몰되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 기지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강정 지킴이가 되고, 이후에 소성리의 지킴이가 되었다. 사적인 물질적 부의 축적보다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면서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저항의 실천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례자C는 고등학교 3학년에 만난 선배들의 영향으로 학생운동과 환경운동을 시작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부산의 천성

산 터널공사 반대운동, 평택 대추리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영덕 핵발전소 반대운동, 그리고 소성리에서의 사드배치 철회운동을 전개하여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삶을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에서 살아왔다. “현장의 삶을 모르면 싸움을 할 수 없다(사례자C: 63)”는 사례자 C에 의하면 지킴이는 주민운동 활동가가 실천의 진정성을 갖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또한 사례자C에게 지킴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정 사건의 도덕적 충격을 통한 일시적 참여나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실천이 아니라, 저항 자체가 개인적인 삶의 한 방식이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이 소성리의 지킴이가 되는 과정과 생애사적 의미는 세 사례가 모두 다르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 방법을 통한 분석으로 각 지킴이 개별적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킴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선택한 세 명의 사회운동 주체를 통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세 명의 지킴이 모두가 청소년기의 종교단체나 사회운동 조직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사회운동 참여의 동기와 생애사적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례자A는 청소년기에 접한 기독교 윤리가 ‘바른 교사’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으며, 사례자B에서는 청소년기 지역사회 천주교 신앙 공동체의 영향이 컸다. 사례자C는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주민운동 현장에서 활동가로 살아오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결합한 에너지정의행동의 연결망이 지속적인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개별화된 사회운동 주체라는 점이다. 세 명의 지킴이 모두 운동조직과의 결합이 느슨하거나 없으며, 소속된 조직과 개인의 판단이 다를 경우 개인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직 중심의 사회운동 주체와 구별된다. 개별화된 사회운동은 신사회운동과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훗날집회⁵⁵⁾와 시민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 주체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는 조직적이고 집단적 차원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개념과 조직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또한 개별화는 조직의 해체나 집단 행동의 부정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자율성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⁵⁶⁾

소성리의 지킴이가 대추리나 제주 강정 지킴이와 다른 차이점은 지역주민들과의 상호작용 결과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소성리 지킴이와 주민들의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첫째 마을의 내부자가 되기 위한 지킴이들의 실천적 특징, 둘째 마

55) 최재훈(2017), 앞의 논문, p.85.

56) Sörbom, Adrienne and Wennerhag, Magnus, “Individualization, Life Politics, and the Reformulation of Social Critique: An Analysis of the Global Justice Movement”, *Critical Sociology* Vol. 39, No. 3, 2011, p.473.

을 주민들의 지킴이 수용 노력, 마지막으로 지킴이와 마을 주민들의 교섭을 통한 변화와 그 결과이다.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타 지역에서 소성리 마을로 이주해 온 지킴이들은 외부자에서 마을 내부자가 되기 위한 헌신과 모범적인 생활로 마을 주민들과 일상적인 공간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지킴이들의 이전 사회운동 경험은 자원이 부족한 소성리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전술을 제공해 주었으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때 충원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둘째 소성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총회를 통해 지킴이들의 마을회관 사용을 승인하고 공식화하여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일상적 공간에서 먹거리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헌신적인 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경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킴이의 내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지킴이들은 ‘주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외부에서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활동으로 소성리를 방문한 지킴이들은 일상 공간과 운동 공간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며 스스로를 ‘반쪽짜리 주민’, 혹은 ‘온전한 주민’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소성리에 뿌리내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은 저항을 위한 충돌과 실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의 주체 개별 차원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며, 그러한 개인들의 결합이 상호 교섭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 내는 사회변동의 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의 상호작용은 평택 대추리와 제주 강정마을의 지킴이 사례와 차이점을 보인다. 대추리는 보상을 계기로 주민 전체가 이주하여 마을 공동체가 해산되었기에 대추리 지킴이들은 주민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초기에 보상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밀도 높은 결합력을 보였으나 해군기지 건설 이후에 주민들과 지킴이는 분리되었다. 마을에 남은 지킴이들은 주소지를 강정마을로 이전하고 수년간 강정마을에 거주하였지만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마을 총회에서 배제되었다.⁵⁷⁾ 이에 비해 소성리는 지역주민운동이 아직 진행 중이며,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 핵심 인물과 다수 주민이 저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다르다. 또한 보상의 대상이 마을 전체가 해체된 대추리나 제주 강정 바다의 선박 선주나 해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에 주민 내부의 갈등이 가시화될 여지가 적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성리의 지킴이들은 주민들과 현재까지 저항과 일상을 공유하여 주민 정체성을 형성·유지할 수 있었다. 소성리 지킴이의 활동을 통해 지킴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가 지역주민운동 현장에서 정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주민으로 소성리 마을에 통합되고 있

57) 딸기(2023), 앞의 책, p.102.

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것은 소성리 마을이 지킴이와 주민의 기계적 결합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외부자와 내부자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연대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사회운동의 장임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개별적 형태로 결합한 소성리 마을의 지킴이와 조직적 형태로 결합한 현장 상황실 및 중앙의 운동조직을 일원적으로 연결하는 안정적인 소통 구조가 부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는 지킴이와 전국 차원의 운동 지형에서 현장의 전술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실이 수평적 논의구조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서 지킴이들에 대한 재인식이 사회운동 조직 내에서도 필요하며, 지킴이들이 소성리 마을의 실천 전술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운동의 현장에서 사회운동 조직과 마을 주민, 그리고 지킴이가 소통하는 방식과 결과는 소성리 마을과 제주 강정 마을의 운동 사례별로, 그리고 각 사례의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지킴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민운동 현장의 주체 간 논의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후속 연구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딸기, 『돌들의 춤: 강정에 사는 지킴이들의 이야기』, 충청남도: 카카포, 2023.
- 원영상, “종교의 사회적 구제와 민중종교론에 나타난 사회참여 -원불교의 평화운동과 교단 변혁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제80집, 2019.
- 유경순,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학연대활동과 노동현장투신 방식의 변화”, 『기억과 전망』, 제3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 윤여일,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제1호, 2017.
- 이강형, 문종대, “지역민들의 ‘지역 정체성’이 지역뉴스 시청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6권 제3호, 2006.
- 이상현·이정필·이보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공간과 사회』, 제48권, 2014.
- 이재각, “성주군 소성리의 사드반대운동과 지역사회의 동향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 모임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41호, 2023.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권 제3호, 2005.
- 정영신, “국가와 군사기지에 대항하는 공동체의 투쟁”, 『창작과비평』, 제45권 제2호, 2017.
- _____,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투쟁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변동”, 『탐라문화』, 제58권, 2018.
- 정은경, “성주 사드배치철폐운동의 주민 리미널리티”,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_____, “지역주민운동을 통한 주민되기: 성주사드배치철폐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제23권, 제

2호, 2022.

정익재,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 이슈 증폭 현상의 정책적 의미 -친성산 원효터널공사 사례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4호, 2010.

조성훈·김선필, “성주 소성리의 사드배치반대운동과 원불교의 미래”, 『종교연구』, 제77권 제3호, 2017.

홍성태, “‘성주 사드배치 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변화: 님비운동의 자기변형과 저항공동체의 재편”,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2019.

최재훈,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사회』, 제113권, 2017.

최혜영, “사회운동 참여와 정치의식의 성장: 강정지킴이 체험과 생태, 평화, 여성의 가치”,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Inglehart,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Jasper, James M, “The Emotions of Protest: Affective and Reactive Emotions in and around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Vol. 13, 1998.

Johnston, Hank, *What is a social movement?*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4.

Schuman, “Howard and Scott, Jacqueline,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No. 3, 1989.

Sörbom, Adrienne and Wennerhag, Magnus, “Individualization, Life Politics, and the Reformulation of Social Critique: An Analysis of the Global Justice Movement”, *Critical Sociology* Vol. 39, No. 3, 2011.

기타 자료

김상패, 다큐멘터리 영화 “양지뜸”, 2024.

박배일, 다큐멘터리 영화 “소성리”, 2018.

【 Abstract 】

Life-historical significance of Jikimi's activities in local residents'
movement and Integration with local residents
: Focusing on The Movement against THAAD Deployment in Seongju

Jung, Eun-Kyoung

‘Jikimi’ is a new movement in which activists or citizens from other regions visit the villages and live there for a long period to demonstrate solidarity in order to mobilize resources that are insufficient for the local residents' movement that takes place in small towns in rural areas with low populations since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fe-historical meaning of the Jikimi who participate in the local residents' movement and to reveal the results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Jikimi and residents in the resistance space, using the example of the Jikimies in Soseong-ri, where the anti-THAAD movement is develop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fe histories of three long-term Jikimies living in Soseong-ri Village, social structural factors,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connections with movement organizations, religion and personal experiences that were not revealed when viewed as a single attribute of external activists supplying resources for resistance. It was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these were applied to the life history of the Jikimies. In these diverse contexts and experiences, the Jikimies became Jikimi to realize the meaning of life as a pursuit of post-material values, an authentic activist, and a teacher who practices Christian ethics.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Soseong-ri village site is not a physical space where the mechanical union of Jikimies and villagers occurs, but a dynamic space where various practices occur in everyday and exercise spac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dedication of the Jikimies, who are outsiders, and the acceptance efforts of the villagers, who are insiders. It was clear that it was a place for social

지역주민운동 지킴이 활동의 생애사적 의미와 주민 통합: 성주사드배치철회운동을 중심으로 (정은경)

movements. As a result of long-term repeated interactions between the Jikimies and residents, a dialectical change was discovered in which the Jikimies recognized themselves as Soseong-ri 'residents' rather than outsiders.

Key Words : Jikimi, THAAD, local residents' movement, social movement, solidarity

• 논문투고일 : 2024년 7월 31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10일

